

부사 ‘지례’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정동경*

1. 서론
2. 시기별 ‘지례’의 의미
 - 1) 후기중세국어
 - 2) 근대국어
 - 3) 개화기국어
 - 4) 현대국어
3. ‘지례’의 의미 변화 과정 및 요인
 - 1) [+공간성] > [+시간성]
 - 2) [-부정(否定)] > [+부정(否定)]
 - 3) [-가정(假定)] > [+가정(假定)]
4. 결론

1. 서론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를 뜻하는 동사 ‘지르-’의 선대형인 ‘즈르-’(徑)는 한글로 된 문헌이 처음 등장하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발견된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한문 원문에서 주로 ‘徑’을 번역할 때 그에 대응하여 등장하는 ‘즈르-’는 현대국어의 ‘지르-’와 마찬가지로 공간상으로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에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진 길을 택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사 ‘즈르-’가 긴 시간 동안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 채로 현대국어의 ‘지르-’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동사 ‘즈르-’로부터 형성된 부사들은 시간이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 또한 여러 변화를 보인다.

동사 ‘즈르-’에서 형성된 부사들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하였다. 이들 세 유형의 여러 형태들 중 최초로 발견되는 형태를 예로 들어 그 유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ㄱ. 즈르-+∅ → 즈르
- ㄴ. 즈르-+-어 → 줄어
- ㄷ. 즈르-+-에 → 줄에

(1)에서 보듯이, ‘즈르-’로부터 형성된 부사로는 첫째, (1ㄱ)과 같이 동사 어간 ‘즈르-’에 어떠한 가시적인 형태소가 통합되지 않은 채 부사로 쓰인 ‘즈르’가 존재했다. ‘즈르’는 동사 어간의 유리(遊離)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발견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둘째, (1ㄴ)에서처럼 동사 어간 ‘즈르-’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용언의 부동사형이 굳어져 형성된 부사 ‘줄어’가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근대국어 후반까지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1ㄷ)과 같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유형으로 ‘줄에’가 있다. ‘줄에’는 동사 어간 ‘즈르-’에 파생접미사 ‘-에’가 결합한 것으로 현대국어의 부사 ‘지레’의 선대형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부사들은 그 단어를 형성하는 절차가 다를 뿐 그 원형이 되는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 이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출현하여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는 부사 ‘줄에(›지레)’는 이전의 논의나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국어에서 부사 ‘미리’와 의미 면에서 유사한 부사로서 언급되어 왔다.¹⁾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들에서 ‘미리’와 ‘지레’를 치환해

1) ‘지레’의 사전적 정의에서 드러나는 ‘미리’와의 유의성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레’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으며 민현식(1994/2001)에서 일부 나타난다. 민현식(1994/2001:178-184)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발견되는 시간 부사(어) ‘즈르’와 ‘줄어’를 [+선행상] 중에서도 “예정보다 앞서 사전에 동작상이 이루어진 것의 표현에 의미의 초점이 놓이는” [사전 선행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전 선행상’이란 “어떤 예정된 시간 이전에 앞서 사건이 이루어진 경우나 어떤 중심 사건의 사건시에 앞서 관련된 사건이 특수한 목적에 따라 사전 발생함을 뜻”하며 ‘즈르’, ‘줄어’는 일

보면 문장의 의도나 어감이 달라지거나 어색해지는 경우가 발견이 되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이 두 부사 사이에 의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ㄱ. 선생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지영이는 오디션 결과를 들기도 전에 {[?]미리, 지레} 낙담하였다.

ㄴ. 외출하기 전에 속제는 {미리, *지레} 해 놓고 있었어야지.

ㄷ. 그렇게 속을 끓이다가 {^{??}미리, 지레} 죽을라.

(2ㄱ)에서는 문장에 ‘미리’를 사용했을 때와 ‘지레’를 사용했을 때에 그 의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미리’가 동사를 수식할 때에는 ‘낙담하였다’보다는 ‘낙담부터 하였다’ 등과 같이 동사구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추가되어야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2ㄱ)에 비해 (2ㄴ, ㄷ)에서는 이 두 부사를 서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 대부분의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그렇듯 ‘미리’와 ‘지레’에도 서로 간에 그 용법이나 의미에서 구별되는 각자 만의 고유한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 두 부사 사이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는 ‘미리’의 사전적 정의와 앞서 살펴보았던 ‘지레’의 사전적 정의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 둘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²⁾

〈표 1〉 ‘미리’와 ‘지레’의 사전적 정의 비교

	미리	지레
[고]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채 일어나거나 어떤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금]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연]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앞질러

차적으로는 ‘미리’, ‘일(>일찍)’과, 이차적으로는 ‘이피’, ‘몬쩌’와 유의 관계에 놓여 있다.

2) 위의 표에서는 필자가 참고한 사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예문을 제외한 그 기술 내용은 그대로 옮겼으나 일부 문장부호나 번호의 모양은 필자가 임의대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이후의 기술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사전을 지칭할 때에 『고려대 한국어사전』은 [고], 『금성국어대사전』은 [금], 『연세한국어사전』은 [연], 『우리말큰사전』은 [우], 『조선 말대사전』은 [조], 『표준국어대사전』은 [표]로 나타내기로 한다.

[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앞서서	무슨 일이나 때가 되기도 전에 미리
[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벌어지기 전에 먼저	① 무슨 일이 채 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앞질러 ② 미리부터 벌써
[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위의 기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들 부사의 공통점은 기준이 되는 때나 사건이 있어 그것보다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선행(先行)하여 일어남을 보여줄 때에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의에서 두 부사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준이 되는 사건이나 시점보다 앞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미리’와 ‘지레’는 차이를 보인다. ‘지레’의 사전 기술에는 ‘미리’에는 들어 있지 않은 ‘채’라든지, ‘무르익기’, ‘~하기도’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채’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 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고, ‘무르익다’는 “시기나 일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를 뜻한다. 또한 ‘~하기 전에’에 결합되어 있는 조사 ‘도’ 역시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 표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레’가 수식하는 동사구가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예정되었던 시간이나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것에 대해 ‘부정적(否定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2)의 예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미리’는 (2-1)과 같이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먼저 행해진(혹은 행해야 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데에 쓰이고 그러한 환경에서 ‘지레’가 쓰일 수 없다. 반면 (2-2)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거나 (2-3)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지레’의 출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미리’는 쓰이지 못하거나 쓰이더라도 그 의미가 자연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레’는 ‘미리’와 함께 [+사전 선행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미리’와는 구별되는 좀 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럼에도 시간 부사로서 이전의 논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여 그 의미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지례’의 이러한 의미 양상이 ‘지례’가 처음으로 출현하던 현대국어 이전 시기로부터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생겨나게 된 것으로, 현재의 ‘지례’가 되기까지 여러 의미적, 용법적 변화를 겪어 왔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래 공간적 의미를 갖는 동사 ‘즈르-’에서 형성된 ‘지례’의 의미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례’가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미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변화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지를 살피고 그를 통하여 시간 부사로서 ‘미리’와는 구별되는 ‘지례’만의 의미 특성을 명확히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지례’가 처음 문헌에서 발견된 근대국어 이후로 각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본 후에 3장에서는 의미 변화를 도식화하고 의미 변화에 미친 요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2. 시기별 ‘지례’의 의미

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례’는 동사 ‘즈르-’에서 파생된 ‘줄에’로부터 각 시기의 음운 현상 및 표기 변동에 따른 형태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간행 시기가 확인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하여 ‘즈르-’를 어간으로 하여 형성된 부사형들의 이형태를 출현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³⁾

3) 근대국어나 개화기국어의 시점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로 보느냐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1997, 1999)에 따라 근대국어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 갑오경장 이전까지, 개화기국어 시기는 갑오경장 이후인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로 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1999:116)에서도 언급했듯이 개화기국어 시기에 서구 사상과 문물의 수용에 따른 어휘의 변화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개화기국어 시기를 따로 설정하는 것은 어휘사적인 논의에서 의미를 갖는다.

〈표 2〉 ‘지레’의 어형별 출현 시기

	중세	근대	개화기	현대
즈르				
줄어				
즈러				
줄러				
줄에				
즈레				
질에				
지레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즈르-’에 파생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 ‘줄에’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고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 장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문헌에서 발견되는 ‘즈르’, ‘줄어’를 살펴보고 근대국어 시기부터는 이 시기에 출현한 ‘줄에’를 중심으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미로 문장 내에서 쓰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후기중세국어

이미 언급한 대로 용언 어간 ‘즈르-’가 그대로 부사로 쓰이는 어간형 부사의 예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 한정하여 나타나는데 그 예가 극히 적다.⁴⁾ 문헌에서 발견되는 ‘즈르’의 용례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⁵⁾

4) 이전의 논의(민현식 1994/2001:184)에서 ‘즈르-’에서 파생된 부사 ‘즈르’의 용례로서 언급되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월인석보』 7:47b “目連이如意定에 드러 즉자히百千億 金翅鳥 । 드외야 各各 다수 龍龕 즈르 드되여 虛空에 잇거늘(爾時目連入如意定即自化作百千億金翅鳥王一一鳥王足躡五龍住在虛空).” 이 논의에서는 밑줄 친 ‘즈르 드되여’를 “앞질러 디디다”的 의미로 과악하여 공간성을 떤 용언 ‘즈르-’(徑)에서 형성된 부사로 보았으며 필자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즈르드되다’는 “꽉 놀리 밟다”를 뜻하는 ‘지르밟다’로 제시되어 있다는 심사위원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본 결과 우선 위의 문헌에서 ‘즈르 드되-’는 저본(底本)의 ‘足躡’과 같은 뜻이어서 ‘즈르-’(徑)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즈르 드되다’의 후대형이라 할 수 있는 ‘지르디디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겨디디다’의 방언형으로 “발끝이나 발뒤꿈치만으로 땅을 디디다.”를 뜻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즈르-’(徑)으로부터 형성된 부사의 예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는 한자어 ‘經’에 대응하는 ‘즈르-’ 외에 동음이의어 ‘즈르-’

- (3) 말숨 드로물 모로매 온공히 호며 는미 마를 즈르 터 아사 니르디 말며(聽必恭호며 母剉說호며) <번역소학 3:28a-b>

16세기 문헌에서 보이는 위의 용례에서는 ‘즈르’가 동사 ‘티-’를 수식하고 있다. 동사구 ‘즈르 티-’는 한문 원문의 ‘剉說’을 번역한 것으로 ‘剉說’이란 “남의 학설(學說)을 훔치어 자기(自己)의 것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즈르-’의 후대형인 ‘지르다’의 여러 의미 중 하나로 “말이나 움직임 따위를 미리 잘라서 막다.”를 뜻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⁶⁾ 이때의 ‘즈르’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할 말이나 의견을 앞지르는 것을 뜻하여 용언 ‘즈르-’(徑)로부터 형성된 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런 예에서 ‘즈르’가 본래 갖고 있던 공간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의미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부사 ‘줄어’의 용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⁷⁾

(ಡ)가 존재하였다. 이때의 ‘즈르-’는 “조르다, 동이거나 감은 것을 단단히 쥐다”를 뜻하며, ‘즈르 들-’, ‘즈르 잡-’, ‘즈르 쥐-’와 같은 다양한 동사구를 형성하여 나타난다. 그 예를 하나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삼강행실도』(런던본) 孝:3 “버미 아비를 끌려들 드라드러 베의 모줄 즈르 든대 아비 사라 나니라(豐爲虎所噬 香年甫十四 手無寸刃 乃擒虎頸 豐人獲免).”

6) ‘지르다’의 동음이의 관계나 다의 관계 기술이 현대국어 사전류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 우선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를 뜻하는 ‘지르다’와 “말이나 움직임 따위를 미리 잘라서 막다.”를 뜻하는 ‘지르다’는 위에서 언급한 현대국어 사전들에서 대부분 다의 관계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둘을 모두 ‘즈르-’(徑)에서 생겨난 의미로 보고 ‘지르다’의 동음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7)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는 ‘즈르-’의 부동사형인 ‘줄어’와 부사형인 ‘줄어’가 문헌에서 함께 발견된다. 이 둘은 어형이 동일하여 부동사형인지 부사형인지를 구분하려면 한 문장 안에 등장하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현식(1994/2001:184)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형 ‘즈르’와 부동사형 ‘줄어’는 아직 부사화되기 전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경로(經路)”와 같은 공간적 의미를 갖는 목적어 명사구를 동반한 경우의 ‘줄어’는 부동사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은 문장에서의 ‘줄어’는 (4)에서와 같이 ‘즈르-’의 부동사형이 아닌 부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줄어’가 목적어를 공기하여 “~을 질러”로 해석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월

- (4) ㄱ. 每言과 말함과 고드면 道에 어루 들어 나사가리라(心言之直則 道에 可徑
造矣리라) <능엄경언해 1:44b>
- ㄴ. ほ다가 이 每言을 알면 眞實로 니르산 드리를 踏디 아니호야 들어 佛地
를 踏며(若悟此心호면 眞所謂不踐階梯호야 經登佛地며) <목우자수심결언
해 15a>
- ㄴ'. 此 參禪하는 學者를 보니 오직 過量大人이 드리를 踏디 아니호야 들어
佛地에 오른 빤들 알오[又見禪學者호니 (중략) 徑登佛地之義호고] <법
집별행록 70b>
- ㄷ. 曹溪へ 法席이 盛히 化호를 듣고 들어 와 參禮하고 문조오더(聞曹溪法
席이 盛化하고 徑來參禮하고 遂 問曰호더) <육조법보단경언해 中 94b-7>

(4-ㄱ)과 (4-ㄴ, ㄴ')의 동사구 ‘들어 나사가-’, ‘들어 ㅌ-’, ‘들어 오르-’는 각각 ‘도 (道)애’, ‘불지(佛地)률’, ‘불지(佛地)예’를 공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를 명사구들은 도착점(혹은 도달점)을 나타내어 ‘들어’가 수식하는 후행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4-ㄷ)에서는 ‘들어’나 ‘들어 오-’가 지배하는 명사구가 존재하지 않아 ‘들어’가 부사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이때, (4-ㄴ, ㄴ')의 ‘들어’가 공간적 의미를 의미함에 비하여 (4-ㄱ)에서는 동사구가 지배하는 명사구의 의미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도착점을 가리키고, (4-ㄷ)에서는 ‘들어’가 ‘오-’를 수식하여 “질러 오다”, 혹은 “미리 오다”와 같이 해석된다. 이때의 ‘들어’는 공간적 의미보다는 시간적 의미에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들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동사의 부동사형이나 부사로 쓰이는 것 외에 합성동사의 어근으로서도 기능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ㄱ. 近間에 家臣을 맷나 물아드리 들어업스니 父母 빤든 天性에 根源흔디라
<월인석보 1:序14a>
- ㄴ. 元興元年에 帝 업거시늘 長子平原王이 病 잇고 여려 皇子 | 들어주구미
前後에 열호로 혜리러니(元興元年에 帝崩커시늘 長子平原王이 有疾하고
而諸皇子夭沒이 前後十數 | 러니) <내훈 2下 16b>

『인석보』 7:29b “釋迦牟尼 精進을 勇猛히 ほしゃ 아홉 劫을 들어 나시니이다.” 앞의 예문은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정진(精進)을 용맹하게 하셔서 아홉 겁(劫)을 질러서 나셨습니다.”로 해석이 된다. 이때 ‘아홉 劫을 들어 나-’와 같은 구문은 ‘아홉 劫’은 [[아홉 劫을 들어] 나-]와 같이 분석되어 ‘들어’가 부사가 아닌 용언의 부동사형임을 알 수 있다.

- ㄷ. 목숨 주쇼셔 願호문 곧 橫邪에 줄어디디 마오져 𩔤라미오 〈법화경언해 5:154b〉
- ㄷ'. 목숨 주쇼셔 願호문 橫邪에 天闕티 말오져 𩔤랄씨라 〈월인석보 17:18b〉
- ㄷ''. 天는 줄어딜씨라 〈월인석보 1:序14a〉

(5)의 ‘줄어없-’, ‘줄어죽-’, ‘줄어디-’는 모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나이보다 젊은 때에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줄어’는 본래 정해진 수명이 다 차기도 전에 “일찍, 먼저” 정도를 뜻하여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근대국어

문헌에서 보이는 ‘줄에’의 최초 용례는 다음과 같다.

- (6) 起復 거상 줄에 벗기다 〈역어유해 상 42b〉

(6)의 ‘줄에’는 현대국어 어형인 ‘지례’의 직접적인 선대형이라 할 수 있으며 17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전의 논의들에서 일반적으로 ‘줄에’는 용언 ‘즈르-’에 부사파생접미사 ‘-에’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⁸⁾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한자어 ‘起復’을 ‘거상 줄에 벗기다’로 풀이하였다. 본래 ‘起復(出仕)’이란 “상(喪) 중에 벼슬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밑줄 친 ‘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예정된 거상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벼슬을 하는 것을 의미하여 시간 부사로서 “〈예정된 때보다〉 앞서, 미리”를 뜻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즈레’가 발견되지 않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즈레’ 대신 부사로서 기능했던 ‘즈르’나 ‘줄어’가 한문 원

8) 송철의 외(2006:625-626) 참조. 이 논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용언 어간에 부사 파생접미사 ‘-에/애’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로는 ‘이대’, ‘고대’와 같이 극히 적은 예만이 발견되어 ‘-에/애’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접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대’나 ‘고대’와 같은 단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나 그 이전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인데 ‘-에/애’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다른 예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야 이렇게 생산성이 적은 접사가 ‘즈르-’와 결합하여 새삼스러이 새로운 부사형을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하겠다.

문의 ‘徑’을 언해할 때에 등장하였으며 이때 이들은 본래 어간인 ‘즈르-’가 갖는 공간적 의미의 영향을 받아 그 의미가 본래의 [+공간성]을 떠기도 하고, 부사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시간성]을 떠기도 했다. 이와 달리 ‘줄에’는 ‘즈르, 줄어’처럼 원문의 ‘徑’에 대응하여 언해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6)에서와 같이 한자어 ‘起復’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 쓰는 과정에서 그 뜻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부사로서 [+시간성]을 떠고 있다.

17세기에 비해 18세기의 문헌에서는 ‘즈레’의 용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며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읽힌다. 아래의 예를 보자.

- (7) ㄱ. 우리 병이 미 혼 초 안히 곧 혼 덕률 머물러 난화 더디고 별 훗듯호야 뒤
며 고함호야 부르지디고 일면으로 정병이 즈레 쫓오라(我兵每一哨內卽留
一隊分投星散搜打喊叫一面正兵徑追) <병학지남 7b>
- ㄴ. 그 후의 후겸이 날을 던호야 널너 굴오더 혼 번 상소호고 명을 밧즈움이
즈레 바든 혐의 업지 아니타 호니(其後厚謙對余言曰一蹴承命不無徑受之
嫌) <명의록언해 卷首下, 존현각일기 48a>
- ㄷ. 공이 급으로 혼여곰 제나라해 스신가라 혼고 도적을 즈레 보내여 죽이라
호니(公令伋之齊 使賊先待於隘而殺之) <오륜행실도 형제도 2a>
- ㄷ'. 쪼 쟁나라해 태조 급불 보내오 도죽 혼여 길혜 가 태조의 괴 가거든 보고
주기라 혼대(又使伋之齊 將使盜 見載旌 要而殺之) <이륜행실도 형제도 1a>
- ㄹ. 모든 역적의 궁경이 전혀 양후의게 잇더니 불횡이 즈레 죽어 근막을 구획
호기 어려온지라 <명의록언해 2:63b>

(7)의 예를 통해 이 시기의 ‘즈레’는 크게 “즉시, 곧장”과 “미리, 먼저”라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7ㄱ)의 예문을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우리 군사가 매 한 초에서 한 대씩 머물러 나누어 던지고 (중략) <그와 함께> 한쪽으로는 정병이 즉시 따르라”로 해석되어 ‘즈레’는 “즉시, 곧장, 지체하지 말고”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7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7ㄴ)은 “한 번 상소하고 명을 받드는 것은 <여러 번 상소함 없이 그 명을> 즉시 받았다는 혐의가 없지 않다”로 해석이 되어 어떤 동작 이후에 바로 그와 관련되는 다음 동작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번 상소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명을 받았다는 혐의가 없지 않다”라고 해석되어

그 동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이전에 선행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7ㄷ)에서는 ‘使賊先待於隘’를 ‘도적을 즈레 보내여’로 번역하여 “급이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도적을 먼저 보내어 급을 죽이게 하였”음을 뜻한다. 이때의 ‘즈레’는 급이 길을 지나기 전에 그보다 앞서 도적이 당도하여야 함을 의미하여 비교가 되는 사건이나 시점 이전에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ㄹ)의 밑줄 친 부분은 이전 시기의 ‘줄어디다. 즈러 죽다’에서 이어지는 예라 할 수 있는데 (7ㄹ)에서는 앞서 보인 예와는 달리 단순히 “제 명을 못 누리고 일찍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역모의 전말을 다 밝혀내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어서 19세기에 등장하는 ‘즈레’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8) ㄱ. 조영은 (중략) 진희의 친척 되므로 형세를 힘 넓어 문관 계제를 밟고아
시험호니 즈레 승탁호여 휘유각 벼슬노 근죽률 직희계 호니[詠 (중략)
 以秦檜姻黨易文階驟擢至徽猷閣出守鄞] 〈태상감응편도설언해 4:38b〉
 ㄴ. 이 씨 공의 격소의 혼 부민이 잇서 장돈의 뜻을 마초아 공을 즈레 죽이려
호니(時公賊所有一貲郎揣惇意欲徑殺) 〈태상감응편도설언해 2:27b〉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세기의 문헌에서 ‘즈레’의 용례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으며 『태상감응편도설언해』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8ㄱ)에서는 ‘즈레’가 원문의 ‘驟’에 대응하며 이때 ‘驟’은 부사로 “갑자기, 돌연히”를 의미한다. (8ㄱ)의 밑줄 친 부분을 역역하면 “문관의 절차를 바꾸어 시행하고 {즉시, 곧장} 등용하여”로 해석되어 이때의 ‘즈레’는 “곧장, 즉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8ㄴ)의 밑줄 친 부분은 “장돈의 뜻을 헤아려 공을 즉시 죽이려 하니”로 해석되어 이때의 ‘즈레’도 (8ㄱ)과 같이 “즉시”로 해석된다.

3) 개화기국어

‘즈레’는 전설모음화를 겪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그 어형이 ‘질에’ 혹은 ‘지례’로 변하였다. 이 시기의 ‘질에’, ‘지례’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9) ㄱ. 대더 사롭이라도 제 분수는 싱각지 아니하고 늄의 크고 장한 것을 보고
 절에 격분호야 본방으라고 혼다가는 미양 벽 터지는 것을 면호기가 어려
 울 터이니 <매일신문 1898년 8월 15일>
- ㄴ. 웅천군에 호쇼도 아니 혼고 지례 관찰부에 정장호기를 관찰부 모당에서
 벗어 들나고 혼고로 <독립신문 1898년 9월 29일>
- ㄷ. 외국에 가서 유학호다는 사롭들은 전혀 통솔호는 이가 업고 학비가 쪘호
 뎅호 슈가 업서셔 혹 중도에 지례 도라오거나 <독립신문 1899년 1월 24
 일>
- ㄹ. 본향 경무관 량규황의 가진바 총환이 지례 터져 총순 샤윤성이가 상호여
 죽었다호기에 <독립신문 1898년 4월 12일>

이 시기의 문헌에서도 앞선 시기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절에’, ‘지례’의 용례가 등장한다. (9ㄱ, ㄴ)의 ‘절에, 지례’는 “즉시” 혹은 “곧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9ㄱ)은 자기의 분수를 생각지도 않고 격분하는 상황을, (9ㄴ)은 웅천군에 호소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관찰부에 소장(訴狀)을 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9ㄷ, ㄹ)의 ‘지례’는 “먼저” 혹은 “미리”와 같이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9ㄷ)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예정보다 앞서 귀국하는 상황을, 총환이 직접 발사하기도 전에 터져버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지례’가 사용되었다.

4) 현대국어

아래의 예문들은 현대국어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는 ‘지례’의 용례 중 일부이다.⁹⁾ 현대국어 시기의 자료에서는 이전 시기와 같이 ‘즉시, 곧장’과 같은 의미의 ‘지례’의 예는 나타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시점에 선행하여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지례’의 예만을 찾을 수 있다.

- (10) ㄱ. 나는 곧 내가 분재를 구박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그렇게라도
지례 발뺌을 해두어야 했다. <박완서 단편선>
- ㄴ. 나는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것이 외부의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잊지

9) 현대국어의 용례들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의 말뭉치 자료에서 검색된 것이다.

않으려고 지례 쳐둔 빗장과 뱃줄이었음을 깨달았다. 〈한계례신문 2002 기사: 문화〉

- (11) ㄱ. 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우선 자신이 손해 볼 것이라 지례집작하고 엇 길로 나간다. 〈삶의 결 살림의 질〉
- ㄴ.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냥 숨이 막혀서 지례 죽였드라. 〈포구〉
 - ㄷ. 그러다 지례 {죽겠다, ?죽었다}.
- (12) ㄱ. 저것들이 지네들 장사에 지장 생길까봐 지례 겁을 먹고 저러는 거다.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
- ㄴ. 장어가 국물에 빠져있다면 얼마나 기름질까’하고 지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 있지만 일단 맛을 보면 달라진다. 〈중앙일보 2002년 기사: 생활〉
 - ㄷ. 그 가르시아가 차근차근 앞뒤 헤아리는 법도 없이 지례 흥분하여 〈숨은 사랑〉
 - ㄹ. 진짜 책벌레나 똑똑한 놈들 앞에서는 지례 주눅이 들었고 〈마이너리그〉
 - ㅁ. 그 여자도 뭔가 아퀴가 안 맞는 분위기에 에라 모르겠다. 지례 포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박완서 단편선〉

(10)에서의 ‘지례’는 ‘미리’로 바꾸어도 의미차를 느끼기 어렵다. (11)과 같은 예들은 이전 시기부터 발견되어 온 것들이다. (11-ㄱ)의 ‘지례집작’은 개화기의 신소설에서 그 용례가 처음 발견되며¹⁰⁾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현대국어 사전류에서 복합명사로 기술된다.¹¹⁾ (11-ㄴ)의 ‘지례 죽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국어 시기에 ‘지례’가 출현하기 전에도 ‘즈르다’의 부동사형인 ‘들어 죽다’로 중세국어 시기부터 발견되었는데 그 용례가 현대국어에까지도 이어짐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 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전 시기의 ‘지례 죽다’가 주로 “요절하다”와 같은 의미로 시제의 제약 없이 본래의 수명이나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쓰였다면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선어말어미 ‘-겠-’이나 어말 어미 ‘-ㄹ라’와 같이 주로 추측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를 동반하고 나타난다. 그로 인해 (11-ㄷ)과 같이 ‘지례 죽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어

10) 개화기 신소설에 등장하는 ‘지례집작’의 예는 다음과 같다. 『빈상설』 1203 “금분이 소견에 평양 산다며 아씨 뭇는 양을 보고 지례집작으로 셔슴지 안이하고 터답을 흐는데.”

1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례집작’의 사전적 정의는 “지례-집작(—斟酌)「명사」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미리 하는 짐작”이다.

미 '-었-'을 동반하면 그 쓰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12)는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지레’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추측하거나 가정할 때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12ㄱ)의 ‘장사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장어국이 기름지다’라는 상황은 실제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런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지레짐작하고) 겁을 먹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ㄷ~ㅁ)에서도 문장의 주어가 느끼기에 부정적인 상황이 주어질 만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지레짐작하고) ‘흥분’하거나, ‘주눅이 들’고, ‘포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레’의 용법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기 시기부터 그 쪽이 발견되었다. 현대국어의 ‘지레’에서 ‘미리’와 구별되어 ‘지레’가 갖는 특수성은 ‘미리, 먼저’와 같이 선행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쩌면 일어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 ‘지레’의 의미 변화 과정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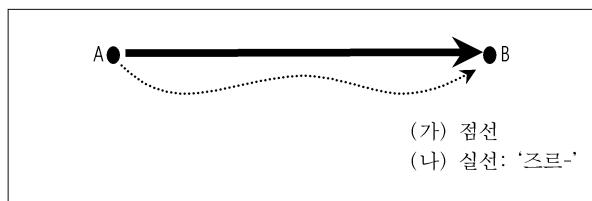
1) [+공간성] > [+시간성]

‘지레’의 의미 변화를 논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지레’가 [+공간성]을 띤 동사로부터 파생되었음에도 [+시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서론을 시작할 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레’는 본래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라는 공간적 의미를 가진 동사 ‘즈르-’(徑)에서 파생되었다. [+공간성]을 띠는 동사 ‘즈르-’로부터 ‘즈르’, ‘줄어’, ‘줄에’와 같은 다양한 부사형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 가장 나중 시기에 출현한 ‘줄에’는 이전 시기의 부사형들인 ‘즈르’, ‘줄어’가 갖게 된 [+시간성]만을 띠고 나타나 그 어근이 되는 ‘즈르-’의 본래 의미에서는 많이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국어 시기에 발견되는 ‘지레’가 갖는 두 가지 의미는 모두 동사 ‘즈르-’로부터 얻게 된 것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근거를 보이기 위해 위에서 두 예를 다시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

- (13) ㄱ. 우리 병이 미 혼 죄 안해 곧 혼 뒤를 머물러 난화 더디고 별 훗듯 혀야
 뒤며 고함 혀야 부르지디고 일면으로 경병이 즈레 쟁오라 <병학지남 7b>
 ㄴ. 공이 급으로 혀여곰 제나라히 쓰신가라 혀고 도적을 즈레 보내여 죽이라
 혀니 <오륜행실도 형제도 02a>

(13-ㄱ)은 ‘즈레’가 ‘곧장, 즉시’와 같은 뜻을 지닌 예이고 (13-ㄴ)은 ‘즈레’가 ‘미리, 먼저’와 같은 뜻을 지닌 예이다. 이렇게 ‘즈레’가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된 것은 동사 ‘즈르-’가 갖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전이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어간 ‘즈르-’의 도식

위의 그림에서 점선 (가)는 A지점을 출발하여 B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길이고 실선 (나)는 A지점에서 B지점을 도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또는 만들어져 있는 길이 없다 하더라도) A와 B 사이의 직선(또는 직선에 가까운) 길로 거리가 가장 짧아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중 ‘즈르-(>‘지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경로 (나)이다. 이때에 (가)를 비롯한 다른 경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장 짧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나)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즈르-’에서 파생된 ‘지레’는 직선거리라는 공간적 의미에서 전이된 시간적 의미 ‘곧장’, 이동 시간이 가장 짧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즉시’와 같은 의미의 시간 부사 ‘지레’를 파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A에서 B에 이르는 여러 다른 경로를 염두에 두면서 경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경로(점선)보다 ‘먼저, 앞서’ B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미리, 먼저’와 같은 의미의 시간 부사 ‘지레’를 파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간성을 내포하고 쓰였던 ‘지레’는 개화기

국어 시기까지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즉시, 곧장’의 의미보다는 ‘미리, 먼저’의 의미로 쓰인 예가 더 우세하였다.¹²⁾

2) [-부정(否定)] > [+부정(否定)]

이렇게 ‘지레’가 [+시간성]을 띠게 되면서 ‘즉시 곧장’이나 ‘미리, 먼저’과 같은 여러 시간 부사와 유의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시간 부사에는 없는 새로운 용법이 ‘지레’에 더해지게 된다. 먼저 이와 관련한 ‘지레’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4) ㄱ. 나라 나아가의 웅장호미 그 민음과 눈을 아스미니 즈레 나아가 날를 서 괴면 데 스스로 빼려디리라 〈병학지남 19b〉

ㄴ. 몬져 성의에 겨신 바를 안주 뇨샹을 거느리고 즈레 물너나와 뼈 쑈문호 시는 길흘 막줄으로 〈명의록 언해 2:44b〉

(15) ㄱ. 起復 거상 즐에 벗기다. 〈역어유해 上 42b〉

ㄴ. 희와 집의 요역은 전고의 업순 바로 흥-하고 완악호야 즈레 죽어 텐듀를 티으디 못호니 〈천의소감언해 4:33b〉

ㄷ. 혼 번 상소호고 명을 밧조음이 즈레 바든 협의 업지 아니타 혼니 〈명의록언해 卷首下, 존현각일기 48a〉

ㄹ. 외국에 가서 유학호다는 사롭들은 전혀 통솔호는 이가 업고 학비가 쪼흔 명호 슈가 업서서 혹 중도에 지레 도라오거나 〈독립신문 1899년 1월 24일〉

(14)와 (15)의 예를 살펴보면 ‘지레’에 의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2) 실제 근대국어 문헌과 개화기 국어 문헌에 등장하는 ‘지레’의 용례에서 ‘즉시, 곧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와 ‘미리, 먼저’와 같은 의미를 갖는 예의 비중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근대국어(21)	개화기국어(24)
‘즉시, 곧장’의 의미	28.6%(6)	16.7%(4)
‘미리, 먼저’의 의미	52.4%(11)	62.5%(15)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것	19.0%(4)	20.8%(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지레’가 ‘즉시, 곧장’의 의미보다는 ‘미리, 먼저’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두 배 가까이 많으며 개화기 국어 시기의 문헌에 오면 그 차이는 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14)는 ‘즈레’에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은 예이고, (15)는 ‘즈레’에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예이다. (15ㄱ)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시간 부사 ‘줄에’가 문헌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되는 예이다. (15ㄱ)에서와 같이 조선 시대에는 상을 다 마치지 않았더라도 전쟁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이 허락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효(孝)와 예(禮)를 중요시하던 그 시대에 거상 기간 중에 벼슬에 나가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인상을 풍기지만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파생부사형 ‘줄에’가 쓰인 것을 볼 때에 단어가 형성되던 초기에 이미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5ㄴ~ㄹ)에서도 모두 ‘즈레(지례)’가 수식하는 ‘죽거나, 명을 받거나, 유학에서 돌아오’는 등의 행위가 예정보다 일찍 이루어지거나[(15ㄴ, ㄹ)] 어떤 중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이루어진 것에 대해[(15ㄷ)]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례’가 이러한 의미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피수식 동사 혹은 동사구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까지 ‘지례’가 수식하는 동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을 조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¹³⁾

〈표 3〉 ‘즈르-+X’ 형 부사의 피수식 동사 중 [+부정] 동사의 비중 변화

	후기 중세국어(22)	근대국어 (21)	개화기국어 (24)	현대국어 (302)
[- 否定]	27.3%	23.8%(5)	4.2%(1)	5.0%(15) ¹⁴⁾
[+ 否定]	72.7%	76.2%	95.8%	95.0%
피수식동사	[+ 否定](단위: %)	31.2%	38.1%(8)	33.3%(8)
문맥	[+ 否定](단위: %)	41.5%	38.1%(8)	62.5%(15)
				38.1%(115)

13) 실제 필사본 자료 등에서도 ‘지례’의 예를 여럿 찾을 수 있으나 자료의 통계는 간행 혹은 필사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여 각각 구분된 시기에 속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문헌들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등장하는 파생부사형의 용례는 없으므로 ‘즈르’와 ‘줄어’의 용례를 통해 산출한 결과를 실었다.

14) 현대국어에서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지 않은 피수식 동사의 경우에 실제 동일한 문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반복되는 ‘지례’의 예가 대부분(10개)이어서 실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

위의 표에서 첫째 줄은 예문 (14)와 같이 각 시기에 발견되는 ‘지례’의 용례 중에서 피수식 동사가 부정적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 문장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이 부정적으로 읽히지 않는 예들의 비중이고, 둘째 줄은 피수식 동사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15a)] 문장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이 부정적으로 읽히는 예들[(15b, c)]의 비중이다. ‘지례’가 발견되던 초기에 비해 후대로 갈수록 ‘지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던 ‘즈르’형이나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근대국어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났던 ‘줄어’형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주로 쓰이게 된 것은 ‘줄에’와 결합하는 피수식 동사의 의미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윤흥현(2013:182)에서 의미가 변화하는 언어적 원인 중의 하나로 언급한 ‘전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¹⁵⁾ 즉, 초기에 ‘지례’가 ‘죽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피수식 동사와 주로 결합하여 나타났으며 ‘줄에 죽다’가 ‘요절하다’ 혹은 ‘정해진 처벌을 받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다’와 같이 부정적 상황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피수식 동사가 갖고 있던 부정의 의미가 ‘지례’에도 전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한편 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이는 ‘지례’의 예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15) 윤흥현(2013:181-203)에서는 의미 변화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에도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을 더 들었으며 ‘언어적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는 ‘전염’, ‘생략’, ‘민간어원’을 들었다.

이 중 ‘전염’이란 “어떤 단어가 특정의 다른 단어와 많은 문맥 속에서 함께 사용되고 그 러한 결합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한 단어에 다른 단어의 의미가 전이되는 경우”를 말 한다.

16) ‘지례’가 출현하지 않았던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부사(어) ‘즈르’, ‘줄어’가 ‘죽다’, 혹은 유의어 ‘디다, 업다’와 공기하여 나타나는 예는 전체(22개)의 63.6%(14)를 차지하고 근대국어 시기에 ‘즈례’가 ‘죽다’와 공기하여 나타나는 예도 전체(21개)의 42.9%(9개)를 차지하여 ‘죽다’가 전체 피수식 동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심재기 외(2011:220)에서는 전염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로서 ‘없다, 아니다, 못하다’ 등과 같은 부정어가 중추적 역할을 하며 전염의 객체는 특정 서술어와 어울리는 명사 또는 부사라고 하였다. 이 사실 또한 ‘죽다’와 같이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동사와 주로 어울려 쓰인 ‘지례’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음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18세기 중후반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야첨재(朝野僉載)』

러한 의미 변화는 ‘지례’가 시간 부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유의 관계를 맺게 된 ‘미리, 먼저’, ‘곧장, 즉시’와의 유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假定)] > [+가정(假定)]

이렇게 [+시간성]에 이어 [+부정]의 의미까지 함축하게 된 ‘지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가정하고 하는 행동이나 동작을 표현할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6) ㄱ. 심히 놀납고 괴이호 말이나 가히 즈레 스스로 흥도의개 무러 그 의심을 더으지 못흘 거신 고로 내 아되 아는 체 아니흐더니 〈명의록언해 卷首下, 존현각일기 9a〉
 ㄴ. 미처 결안티 못흐야 즈레 죽다 〈속명의록언해 2:11b〉
 ㄷ. 외국에 가셔 유학흔다는 사람들은 전혀 통솔흐는 이가 업고 학비가 쪐흐
 뎅흔 슈가 업서서 혹 중도에 지례 도라 오거나 〈독립신문 1899년 1월 24일〉

에서 ‘즈레’가 ‘가볍다’는 의미를 가진 ‘輕’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예가 나타난다[『조야첩재』 19:31 “냥니 물망이 이시더 의향을 아지 못흐니 가히 즈레 천거호야 시절 일을 문호치를 일위지 말지라(兩季果有人望 未知意向 不可輕薦 致壞時事)”]. 극히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즈레’의 의미에 본래에는 없던 부정적 함축이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례’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과정을 전연으로 설명한 본고의 견해에 대해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순환론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즈레’의 어근인 ‘즈르-’에 “예정된(혹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앞서 가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 하지만 근대국어까지만 하더라도 ‘즈레’가 “즉시, 곧장”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 빠르게’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14)와 같은 용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즈레’가 ‘미리’와 같은 의미로 쓰여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기대되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읽히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즈르-’를 어간으로 하여 형성된 부사가 “미리”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에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서부터 주로 함께 나타나는 피수식어로 “죽다, 소멸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가 암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지례’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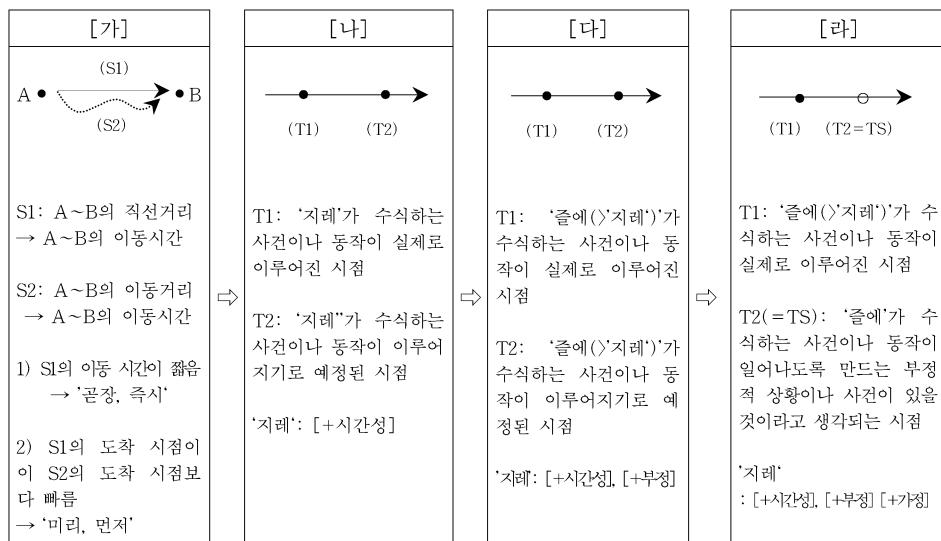
- (17) ㄱ. 금분이 소견에 평양 산다며 아씨 뜻는 양을 보고 지례집작으로 셔슴지
안이 흐고 뒤탑을 흐는듸 <빈상설 803>
- 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례 겁을 내며 원망스럽게 옆의 침대를 건너
다보았다. <박완서 단편선>
- ㄷ. ‘장어가 국물에 빠져있다면 얼마나 기름질까’하고 지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 있지만 일단 맛을 보면 달라진다. <중앙일보 2002년 기사: 생활>
- ㄹ. 나한테 정말 주기 싫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달랠까 봐 지례 겁먹은 거
지. <냉장고>

(16)의 예는 ‘지례’가 수식하는 동사의 주체가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행할 때에 쓰이는 예로 부정적인 상황을 함축하고는 있으나 ‘지례’가 수식하는 동사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보다 앞서 행함을 나타낼 뿐이다. 즉, (16-ㄱ)에서는 ‘흉도가 화자에게 물어 볼 시점’이, (16-ㄴ)에서는 ‘결안(結案)할 시점’이, (16-ㄷ)에서는 ‘공부를 다 마치고 유학에서 돌아올 시점’이 전제가 되는 기준 시점이 되고 이들 기준 시점에서의 사건들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 그 기한이 다 차기도 전에 앞서 이루어진 동작이나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게 될 때에 ‘지례’가 쓰였다. 이러한 용법으로 ‘지례’가 쓰인 예는 개화기국어 시기의 용례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16)와 같은 용례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17)와 같은 ‘지례’의 용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7)는 ‘지례’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 자체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성이 높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미리 가정한 상태에서 그 가정하고 있는 사건이 이루어질 시점을 전제로 하여 그보다 앞서 어떤 동작을 취함을 나타낼 때에 쓰임을 보여주는 용례이다. 이때에는 ‘지례’가 수식하는 동사구에 대해 부정적인 어감을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기준 시점에서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는 상황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7)의 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17-ㄱ)의 ‘지례집작’은 ‘지례’가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림”을 뜻하는 ‘집작’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

급하게 미리 짐작을 하다”라는 의미로 기술되어 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개화기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지레짐작하다’와 같은 표현이 현대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로서 굳어져 널리 쓰이게 된 것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레’가 전제하고 있는 기준 시점 실제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 될 만하다.¹⁷⁾ (17ㄴ~ㄹ)에서도 이렇게 ‘지레’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쓰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17ㄴ)의 ‘앞으로 일어날 일’과 같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 (17ㄷ)의 ‘-ㄹ까 봐’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17ㄹ)의 ‘-ㄹ까 봐’와 같이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하거나 두려워” 함을 뜻하는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이 ‘지레’가 수식하는 동작이나 사건의 전제가 되는 기준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지레’의 용법은 이전 시기까지 보였던 ‘지레’의 용법과 더불어 현대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레’의 의미 변화의 양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지레’의 의미 변화

17) 실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의 말뭉치 자료 검색에서 문면에 ‘지레’가 ‘짐작’과 공기하여 나타나는 용례가 전체 용례(302개) 중 29.8%(90개)를 차지하였다.

먼저 ‘지례’의 의미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즈르-’에서 파생된 ‘줄에’가 시간적 의미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럼 [가]에서와 같이 선적 공간에서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거리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곧 각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A에서 B까지 직선 거리로 이동함을 뜻하는 ‘즈르-’에서 파생된 ‘지례’가 ‘즉시, 곧장’ 혹은 ‘미리, 먼저’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시간적 의미를 가진 ‘지례’는 ‘미리, 먼저’, ‘곧장, 즉시’ 등의 시간 부사와 유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개화기국어 시기로 내려오면서 ‘미리, 먼저’로 쓰이는 예가 더 많아지고 ‘곧장, 즉시’로 쓰이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례’가 시간성을 획득하고 시간 부사로 굳어져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간성을 더 반영하고 있는 ‘곧장’과 그에서 파생된 시간적 의미 ‘즉시’와의 연관성이 점점 희미해져 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개화기 국어시기로 오면서 ‘지례’는 그림 [다]와 같이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부사 ‘미리, 먼저’나 ‘곧장, 즉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이는 ‘지례’가 그 용법에서 변화를 보이는 두 번째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T2)보다 앞선 시점인 (T1)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이 부정적일 때에 ‘미리’나 ‘먼저’보다는 ‘지례’가 선택되어 쓰이게 되고 그로 인해 ‘지례’가 [+부정]의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지례’가 용법의 변화를 보이는 세 번째 단계는 개화기 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지례’ 자체의 의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시점의 성격이 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그림 [다]까지의 ‘지례’의 의미는 (T1)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동작과 (T2)에서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사건이나 동작이 일치하면서 기대되는 시점과 실제 일어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라]에서는 (T1)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과 (T2)에서 일어날 상황이나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례’가 수식하는 동사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TS= The Time of Supposed Situation)에 보이게 될 반응이나 동작을 미리

행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지례’의 용법은 대부분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상황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앞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반응 역시 ‘경솔함’, ‘성급함’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본래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라는 공간적 의미를 가진 동사 ‘즈르-’(徑)에서 파생된 ‘줄에’가 현대국어의 ‘지례’로 이어지기까지 그 의미와 용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현대국어에서의 ‘지례’의 의미와 용법을 명확히 정의 내려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지례’의 의미 및 용법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즈르-’에서 파생된 ‘줄에’는 근대국어 시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의 시간성을 갖고 있었다.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에 가능한 경로 중 가장 짧은 직선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공간적 의미에서 파생된 ‘곧장, 즉시’와 같은 의미가 그 하나이고, 다른 여러 경로보다 도착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에서 파생된 ‘미리, 먼저’와 같은 의미가 나머지 하나이다. 이후 개화기국어 시기로 내려오면서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해져 어떤 상황이나 동작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되기도 전에 그보다 앞선 시점에서 그 상황이나 동작이 일어나게 됨을 뜻하였다.

이후, ‘지례’는 그 용법에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선행하여 일어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될 때에 ‘미리’나 ‘먼저’보다는 ‘지례’가 선택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지례’가 출현 초기부터 공기하는 피수식 동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예가 많았고 특히 ‘죽다’를 뜻하는 동사와 공기하여 쓰이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로 인해 피수식 동사의 부정적 의미가 ‘지레’에 전염되어 부정적 의미를 갖는 문맥이나 동사와 함께 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 이르면 ‘지레’에서 이전 시기와는 또 다른 성격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개화기 국어 시기의 후반에 발견되는 ‘지레 짐작’과 같은 표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현대국어 이전의 용례들에서는 ‘지레’는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이, 전제가 되는 기준 시점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나 동작이 일치하는 가운데 둘 사이의 시간 차이를 보여 실제 앞서 일어난 행동이나 상황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국어에 오게 되면 이러한 상황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ST=Supposed Situation Time)에 보이게 될 반응이나 동작을 미리 행하였음을 보여줄 때에 주로 ‘지레’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레’가 시간 부사로 형성된 초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시간 부사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레’만의 의미와 용법을 공고히 함으로써 유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이것이 현대국어 사전류에서 ‘미리’와 유의어로서 기술되지만 실제 용례에서 어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레’, 공간성, 시간성, 부정, 가정

투고일(2015. 7. 23), 심사시작일(2015. 7. 27), 심사완료일(2015. 8. 18)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_____ (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개화기국어』, 국립국어연구원.
 _____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민수 등 편(1992), 『(금성판)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국어학총서 21), 태학사.
- 남경완(2008),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국어학총서 63), 태학사.
- 남성우(1986), 『15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탑출판사.
 _____ (2006), 『16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민현식(1991/2004), 『국어의 시상과 시간 부사』, 한국학술정보.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2006), 『조선말대사전(상·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철의 외(2006), 『(역주)오륜행실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교양.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윤평현(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 이광호(1995), 『유의어 통시론』, 이희문화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 김진수(1985), 「시간 부사 ‘벌써’, ‘이미’, ‘아직’의 상과 통사제약」, 『한글』 189, 한글학회, 87-112.
- 김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1990a), 「부사 연구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태학사.
 _____ (1990b),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1)」, 『국어학』 20집, 47-71.
 _____ (1991),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2)」,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태학사.
 _____ (1998a), 「시간어의 낱말밭」, 『한글』 240, 한글학회, 323-354.
 _____ (1998b), 「시간어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이광정(1983), 「15세기 부사형어미 ‘-게’와 ‘-이’에 대하여」, 『국어교육』 44, 207-220.
- 임채훈(2003), 「시간 부사의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의미학』 12, 155-170.
 _____ (2006), 「문장 의미와 사건」, 『한국어의미학』 21, 183-220.
 _____ (2011), 「유의 어휘관계와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의미학』 34, 349-373.

- _____ (2013a), 「어휘의미 관계와 어휘적 응집성」, 『한국어의미학』 40, 307-321.
- _____ (2013b), 「문장과 담화 층위에서의 어휘의미 관계: 어휘부의 내적 정보로서 어휘의미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42, 495-514.
- 장요한(2011), 「중세국어 ‘마초아’의 용법과 어휘화」, 『언어와 정보사회』 제14호,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19.
- 주경희(1985), 「시간 부사의 의미·통사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 천기석(1983),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1)」, 『어문논총』 17(경북 대), 1-59.
- Haspelmath, M.(1997), *From Space to Time: Temporal Adverbials in the World's Languages*, München: Newcastle.
- Hopper, P. J. & E. 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ein, W.(1994), *Time in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Ullmann, S.(1970),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lackwell.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n the Meaning of Adverbs ‘Jire’

Jung Dongkyong *

This paper is written to study the more precise meaning of adverb ‘Jire’. In most contemporary dictionaries, ‘Jire’ is described as the synonym of temporal adverb ‘Miri’. But ‘Jire’ has some distinctive meanings that cannot be replaced by ‘Miri’. So, to determine the unique meaning of ‘Jire’, I consider semantical changes of adverb ‘Jire’ which is formed from verb ‘Jeureu-’, diachronically.

In summary, ‘Jire’ has experienced three-step semantical changes from the middle Korean times to the contemporary Korean times. At first, the meanings of ‘Jire’ changed from the spatial to the temporal in the middle Korean times. The next thing, ‘Jire’ came to imply the negative meaning in the latter part of modern Korean times. Lastly, ‘Jire’ has come to be used when the narrator or the agent supposes the situation that is a very little possibility of occurrence and that will lead to a negative result.

Key Words : ‘Jire’, spatiality, temporality, negation, supposition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